“깨끗한 물 덕분에 더 밝은 미래 꿈꿔요”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양곤 외곽 위치 쉐본우 사원학교
스님 35명 생활…400여 명 재학
서산 금강사 후원으로 시설 마련
인근 4000여 주민도 사용 가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이 다섯 번째 결실을 맺었다. 사진은 쉐본우 사원학교 학생들이 설치된 정수시설에서 물을 받고 있는 모습.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쉐본우 사원학교에 다섯 번째 시설이 완공됐다.

양곤 시내에서 동남쪽으로 차로 30여 분 소요되는 쉐본우 사원학교는 사찰이 운영하는 무상교육기관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남학생 227명, 여학생 167명 총 394명이 재학 중이다. 또 교사 11명을 비롯해 35명의 스님이 거주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깨끗한 식수 확보는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동안 학생들은 우기 때 저수지 물을 물탱크에 보관해 침전물을 가라앉혀 생수통과 식수 항아리를 이용해 식수로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은 늘 위협받았다. 특히 결막염, 설사 등 각종 질환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이러한 현실을 접한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은 현지 조사 끝에 정수시설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2시간 동안 물탱크 1000리터를 채울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마련키로 했다. 마침 서산 금강사에서 현대불교신문에 소개된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기사를 접하고 600만원을 후원하면서 본격 추진될 수 있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아이들은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도 불평 대신 묵묵히 공부를 이어 왔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교사들은 이번 정수시설 설치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와 생활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이번 정수시설 설치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건강이 보장돼야 배움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수시설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완공된 정수시설을 접한 한 학생은 “그동안 물이 깨끗하지 않아 자주 배가 아팠다”면서 “이제는 걱정 없이 물을 마실 수 있어 좋다”고 기뻐했다. 또 다른 학생은 “깨끗한 물을 마시며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로터스월드 관계자는 “깨끗한 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특히 사원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해외 아동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는 정기적으로 정수시설을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우 묘민두 쉐본우 사원학교 교장은 정수시설이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라고 말했다.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시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정수시설 설치로 모두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교육 환경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개선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아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꾸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25-4277

후원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70돌 중신회, 제1회 총무원장배 골프대회

160여 전국 불자 참여…화합 장
불우이웃 돕기·불교 발전에 회향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사진〉

9월 8일 전남 나주 중흥 골드레이크CC에서 열린 대회에는 전국 각지 교구 신도회에서 참가한 40개 팀 160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해 자비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낮 12시 개회식에 이어 홀 라운딩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간간이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걷고 웃으며 친교와 결속을 다졌다.

정원주 회장은 대회사에서 “전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한 오늘의 대회는 단순한 골프 경기를 넘어 자비 실천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자리”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불자들이 더욱 하나 되어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나아가 불교의 희망을 이어가는 인연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모아진 자선기금은 불교계의 공익 활동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며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는 실천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불자 신행문화의 새로운 시작점이자 서로 친교를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안에서 앞으로도 불교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대회는 시상식을 통해 다버디, 니어리스트, 롱기스트, 최저타상, 단체상 등 다채로운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이날 참가자들이 정성껏 모은 자선기금은 중앙신도회를 통해 22교구신도회(회장 백종남)에 전해져 불교계 복지사업과 이웃돕기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9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대중법회를 봉행하며, 9월 27일에는 구미에서 파크골프대회를 열어 불자들의 화합을 도모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원로 스님들 “필요하다면 연임제 전환”

9월 10일 전승관서 원로회의
‘연임제’ 종헌 개정 보고 받아
대종사 특별법계 인준도 진행



태고종 원로 스님들이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에서 4년 1회 연임으로 전환하는 종헌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고 “필요하다면 연임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공감의 입장을 전했다.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호명 스님)는 9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웅보전에서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과 중앙종회로부터 ‘2025년 태고종 영산재 및 국제수계법회 보고’와 ‘종헌·종법 개정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총무원장의 임기를 현행 4년 단임제에서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헌 개정안의 당위성을 원로의원 스님들에게 설명했다.

시각 스님은 “현재 종단이 재도약을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에 상응하도록 종헌 종법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종회는 종단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종헌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로의원 설봉 스님이 “대중 공의를 위한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금명·지현·혜주 스님 등 대부분의 원로 스님들은 연임제 전환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혜주 스님은 “저 역시 종무원장 재직 당시 4년 임기로는 연속성 있는 사업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면서 “종책 사업의 연속성 등을 생각하면 연임제 전환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 총무원장도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사퇴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 종단을 잘 운영한다면 선거를 통해 선출될 것이고, 잘 못하면 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의원 스님들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총무원의 ‘2025년 태고종 영산재 및 국제수계법회 보고’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1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태고종 영산재 및 국제수계법회의 참여 독려를 원로 스님들에게 요청했다.

상진 스님은 “총무원에서 사활을 걸고 광화문 광장 영산재와 국제수계법회를 준비 중”이라며 “태고종 종도와 국민들이 수계를 통해 하루만이라도 참회를 할 수 있는 법석이 될 예정이다. 원로의원 스님들께서 법회가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과 권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는 ‘2025년 대종사 특별법계 인준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방송 신임 이사 선임…소위 구성

9월 10일 제128차 이사회서
도웅 스님·임채진·이수덕 선임

재단법인 BBS불교방송(이사장 수불 스님, 이하 불교방송) 신임 이사에 천태종 교무국장 도웅 스님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수덕 전 참여불교재가연대 이사장이 선임됐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9월 10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제128차 회의를 열고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18명 중 12명이 참석해 성원이 된 이날 회의에서 불교방송 이사회는 이사직을 사임한 갈지 스님과 박기동 이사의 후임으로 천태종 교무국장 도웅 스님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을 각각 선임했다.

임기만료된 정수교 이사의 후임으로는 이수덕 전 참여불교재연대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임기만료를 앞둔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를 비롯해 윤원철·엄상호 이사는 연임이 확정됐다.

새로 이사로 선임된 도웅 스님은 “평소 존경하는 수불 스님을 모시고 활동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미력하나마 불교방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2025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보고 과정 중 만공회 회원 모집, 신사옥 건립 등 불교방송 경영에 대한 이사진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서진영 사장은 직접 나서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1시간 20분여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지자 이사장 수불 스님과 상임이사 현민 스님은 이사진과 경영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회의는 마무리됐다.

신중일 기자

